



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

박정희 선임연구원

연구

2016년 미국 사이버보험 관련 원수보험료는 사이버범죄 증가로 전년 대비 34.7% 증가한 13.4억 달러를 기록함. 총원수보험료의 67.9%가 단독보험(standalone)으로 재물·배상책임 보험 등 특약형태의 패키지보험보다 선호됨.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상위 15개사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약 8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 대다수는 사이버보험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2016년 미국 사이버보험 관련 원수보험료(direct premiums written)는 사이버범죄 증가로 전년 대비 34.7% 증가한 13.4억 달러를 기록함¹⁾
 -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해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
 - 사이버보험은 랜섬웨어를 포함한 해킹 공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이며, 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사업을 보호해 주거나 해킹으로 시스템이 다운됐을 경우 시스템 복구 비용 및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 등이 있음
 - 미국의 경우 2016년 총 298,728건의 해킹피해 신고가 있었으며, 전년 대비 24% 증가한 13.3억 달러의 손실이 보고됨²⁾
 - 해킹피해자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금액의 56.6%를 차지해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
 - 반면, 피해건수는 20~40대 중년층의 비중이 57.1%로 나타나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 계층의 피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

1) A.M. Best(2017. 6. 22), “Cyber Line Expected to be one of the Leading P/C Growth Areas”, *Best’s Special Report*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, 보고서의 데이터는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(NAIC)의 사이버보안 관련 부속보고서(Supplement, 140개 보험회사가 참여하고 외국사는 미포함)를 기반으로 함
 2) FBI IC3(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)(2017. 6. 22), “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Releases Annual Report”

- 2016년 사이버보험 관련 원수보험료 중 67.9%가 단독보험(standalone)이었으며, 재물·배상책임보험 등 특약형태의 패키지(packaged) 상품보다 선호되고 있음
 - 특히 상위 5개 보험회사³⁾의 단독보험 원수보험료가 5.7억 달러로 단독보험 중 81.0%를 차지하였으며, 패키지보험보다 효율적·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⁴⁾
 - 2015년 사이버보험의 유형은 단독보험과 패키지보험의 원수보험료가 각각 4억 8,300만 달러와 5억 1,500만 달러로 비슷하였으나, 2016년 AIG가 패키지형 사이버 보험 특약 부분을 단독보험으로 전환 하면서 단독보험의 비중이 상승함
 -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은 사이버리스크의 보험료 책정 및 언더라이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보험 회사의 과도한 사이버리스크 익스포저(exposure)는 경계할 것을 제안함⁵⁾

- 한편, 사이버보험 시장의 상위 15개사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미국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83%를 차지 하는 대형사들이며,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사이버보험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원수보험료 규모별로는 AIG 2억 2,800만 달러, XL Group 1억 6,000만 달러, Chubb 1억 3,300만 달러 등의 순이며, 이들 상위 3개사의 2016년 사이버보험 시장점유율은 40%임
 - 사이버보험 시장은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임
 - 한편, Markel Corp은 116위에서 16위로, Starr International Group은 110위에서 18위로 상승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룸
 - 사이버보험 손해율(direct pure loss ratio)은 2015년 51.4%에서 2016년 46.9%로 4.5%p 감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
 - 대부분의 사이버공격이 랜섬웨어와 관련이 있었으며, 손해율 감소는 거의 모든 랜섬웨어 사례에서 손실이 공제금액보다 낮거나 간단한 백업 복구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한 데 기인

- 최근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노출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험이 미국의 손해보험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**kiri**

3) 상위 5개사는 American International Group, XL CatlinAmerica Group, Beazley Insurance Company, Travelers Group, AXIS Insurance Group 순임

4) Insurance Journal(2017. 4. 24), "RIMS 2017: Why Cyber Should Be Treated as Standalone Insurance"

5) Insurance Journal(2017. 5. 17), "Fitch Urges Insurer Caution as Cyber Insurance Demand Grows"